

강사법, 오해와 진실

교수칼럼

채효정

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항을 겪어온 강사법이 드디어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돼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5월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자신의 생존과 생계, 연구와 강의를 학과 지도교수에게 완전히 종속당한 채 논문대필까지 강요 받으며 살아온 비참한 현실을 죽음으로 고발하며 강사들이 당하는 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알려지게 됐고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 강사법 논의는 그렇게 시작돼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은 당사자인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7년째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 없어 올해 3월 교육부의 주관으로 ‘강사법 개선협의회’가 구성됐고 기존 유예 강사법을 보완·개선해 합의안을 내놨다. 대학, 강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나는 강사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5개월간 총 회의 18차례, 워크숍 2회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던, 최초의 강사법 합의안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신정권이 박탈한 강사의 교원 지위가 40여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유포하는 부정확한 정보와 논리가 강사들을 해고의 공포에 떨게 하고, 대학에도 과도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사법은 대량해고법’이라는 가설이다. 강사법 시행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들이 법 시행 이전에 강사들을 대량해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대학들의 대량해고를 정당화하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그럴까? 돈이 많이 든다는 말도, 돈이 없다는 말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대교협의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7년 간의 유예 끝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 총 3천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역 소리가 나지만, 전국 강사들 모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이 고작 3천억 원이면 된다. 400개가 넘는 전국 대학으로 나뉘 보면 평균 7억 5천만 원 정도다. 그것은 도대체 대학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돈일까. 경희대만 해도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 넘고 고려대는 1조 원에 육박한다. 비율로 보면 강사 인건비는 대체로 대학 예산의 1% 미만이다. 우리가 담당하는 강의는 30~40%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는 당연히 예산을 배정할 것이고, 사립대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장관은 예산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정도로 의지를 보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대학이 할 일은 강사를 해고하는 등 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해 행위가 아니라 법 시행의 의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정확한 소요 경비를 추계하는 것이다. 대학구성원들도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대표적 유언비어는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 진입장벽’이라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현직 강사와 강사가 될 대학원생 사이를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한다. 개정 강사법은 1년 이상 계약하고 2회에 걸쳐 재임용 기회를 부여한다.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강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직 이동에 따른 결원도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마치 3년 동안 신규 채용이 완전 봉쇄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금도 강사들의 평균 강의 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학문후속세대의 진로는 강사법과 무관하다. 오히려 그동안 무분별하게 늘어난 대학원 정원과 수강대란을 초래할 정도로 줄여온 학부 개설 강좌수를 검토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을 맞추고 대학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개임용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공채 원칙만 합의했을 뿐, 기준과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담아야 한다. 현직강사에 유리하나, 신규강사에 유리하나는 논란은 지금 단계에선 무의미한 논쟁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전임교수 시수가 늘어 전임교수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대학들이 강좌수를 줄이고 대형 강좌를 늘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와 교수들, 선생과 학생을, ‘그들의 이익이 당신의 손해’라는 선동으로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갈등조장의 논리다. 그런 말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강사들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 착취를 계속 하자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가 해방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이 대학판 노예제도를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 지금 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악화시키는 것이고, 전임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다. 각자 선 자리에서 자신의 유리하고 불리한 따져서는 지금 상태에서 한 발도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기말 시험을 채점하던 그 날, 메일 한 통으로 해고 당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크리스마스는 그 날 이후 사라졌다. 가르치는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일이 ‘후마니타스’란 이름을 내건 곳에서 일어난선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지만, 나는 이 학교에서 어떤 소청과 재심의 권리도 갖지 못한 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교원소청권을 보장하는 강사법은 나와 같은 사람이 다니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강의가 폐강 되었는가?’, ‘왜 나는 해고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일개 강사 따위가 감히 물을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된 권리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많은 교수들과 대학 본부는 강사들 사정이 딱하지만 나라의 법이 없어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제 나라의 법이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마당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



총여 존폐 논의 반년 공고되지 않은 학생총투표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시작된 총여학생회(총여)는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이 매우 모호해졌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 총여의 입지가 줄어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본인 또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몸소 느낀 바다.

지난 4월 대학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대학 사회에는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더 나아가 학내 모든 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 국제캠퍼스 총여는 지난 2016년 학생총투표를 통해 남성에게도 투표권을 개방하고 그 해 최초로 남자 대표자가 당선되는 등 변화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변화한 가치관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회성 복지사업만으로도 벽찬 총여의 예산과 인지도로는 모든 인권을 아우르는 가치관에 입각한 활동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총여, 총학 산하 기구로 편입은
더 큰 혜택 가져 올 선택

게다가 올해는 재보궐 선거 무산, 임기 종료에 따른 예산 심의의 어려움 등이 겹쳤다. 따라서 총여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총학생회(총학) 내부 기구로 임시 편입시켜 학생들이 낸 자치회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총여의 존폐 여부에 대해 직접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총여와 같은 기구를 총학 내부에 두고 운영하는 방안은 이미 많은 대학에서 대안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히려 규모와 예산,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방법이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총학과 논의해 성평등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수인계를 마쳤다. 또한 3월 28일 중앙운영위원회(중앙위)에 직접 총여 존폐를 다룰 총투표 안건을 최초로 발의하여 이미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총투표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대로 정기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총여 입후보자가 발생하면 중앙위에 안건이 상정된 것과는 별개로 총투표의 진행은 힘들어질 것이다. 총투표 시기에 대한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총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총학생회칙 제26조가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중앙위 의결을 통해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해 투표실시를 공고했어야 한다.

총여 부회장으로 1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1개월, 거의 2년이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함께한 총여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없애달라 제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밝힌다.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는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에서의 자료 요청에는 모두 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학 성평등인권위원회로의 인수인계는 모두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투표 안건 상정에서 의결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본인은 졸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최초로 밝힌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④

능숙한 언어사용 가능케 하는 ‘자동성 획득’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오늘도 출근을 위해 지하철자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몸을 싣고 시동을 걸고 운전を 시작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했는데 차는 어느새 학교 인근을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에 대해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차를 운전하여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운전 규칙을 실행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였는데 이제는 저절로 운전하며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오간다.

생활 속 동작처럼

익숙해지면 언어도 자동

외국어 학습에서도 이러한 자동성이 발견된다. 능숙한 언어사용자는 단어를 선택하고 적절한 문법형태소를 사용해서 단어들을 배열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언어 사용 일련의 과정을 자동적으

로 수행한다. 여러 규칙의 나열이 었을 언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은 실제 환경에서의 수많은 사용 경험을 통해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 초기에는 단수와 복수, 과거와 현재 등 여러 문법적 지식을 의식해 문장을 구성하나, 적절한 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연습은 의식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초기 학습 후 자연스럽게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수행하는 많은 스킬들이 자동성을 획득한 결과라 한다. 언어 학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습은 명제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or knowledge that)과 함께 시작해서 연습을 통해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or knowledge how)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단계마다 명제적

접근에서 시작하지만 같은 행동을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명제적 지식이 자동적인 절차적 지식으로 넘어가고 자동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수한 반복을 통한 ‘습득’

유의미한 연습도 필요

언어 지식이 실제 연습을 통해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자동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습득이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자동화를 불러오는 연습은 무조건 따라하는 기계적 연습이 아니라 실제 환경 혹은 교육적 유사 환경에서 실제성을 띤 유의미한 연습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우리의 무수한 영어 문법 지식이 말로 쉬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문법 지식이 명제적 지식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명제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하게 할 유의미한 연습이 우리의 영어 교육에서는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자동성은 언어 처리에서도 유용하다. 능숙한 언어 학습자는 친숙한 단어를 들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한다. 그만큼 능숙한 언어 사용자는 텍스트나 회화의 전반적 의미에 충분한 주의집중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덜 능숙한 학습자는 개별 단어의 의미 처리와 그들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주의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자동적 의미 처리의 부족은 외국어 학습자가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어 화자보다 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한다.

일단 자동화가 이뤄지고 나면 명제적 지식에 대한 생각은 그 스킬을 실제로 실행하는 동안 그것의 자연스런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거나 20년 경력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모든 동작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떻게?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행하느라 생각을 놓치지 힘들 것이다. 유창한

외국어 화자는 외국어로 말할 때 그들이 명제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어 화자가 모어의 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왕왕 서툴고 어려워함을 본다.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모어 화자보다 학습자가 더 잘하기도 한다.

습득 이후 노력은 방해대

수월해질수록 자동으로

언어 습득은 목표 언어가 장기 기억 영역으로 이동하며 일어난다. 언어 입력의 장기기억으로의 저장은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연습으로 가능하다. 유의미한 환경에서 목표 언어의 경험은 자연스런 연습으로 이어지고 명제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한다. 절차적 지식은 사용 환경에서 거듭 인출되고 잦은 인출은 어느덧 무의식적 사용, 즉 자동화로 이어진다. 자동화는 유창한 화자가 그러하듯이 여러 면에서 수행의 수월성을 드러낸다.